



# “맛있고, 더 건강하게” 제주 담은 브런치

유기농·로컬푸드 재료로 차별화 추구  
전망 좋은 공간서 ‘건강한 맛’에 흠뻑

카이로스 카페에선 유기농 식재료와 제주산 고사리, 당근 등 로컬푸드로 만든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① 당근주스와 망고주스 ② 고사리 파니니 ③ 시그니처 세트. 사진=오은지기자·카이로스 카페

## 당찬 맛집을 찾아서

### <202> 제주시 애월읍 ‘카이로스 카페’

“자극적이지 않고 달지 않게 그리고 담백하게, 식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카이로스 카페’를 운영하는 윤순환(66) 대표가 추구하는 ‘맛의 철학’이다. 카페의 메뉴는 ‘오가닉 푸드’에 관심이 많은 주인공의 취향이 레시피에 녹아든 ‘건강한 맛’이 매력적이다.

‘카이로스’는 은퇴 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했던 윤 대표가 제주에 터를 잡으며 지난 2016년 5월 문을 열었다.

제주의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중산간 마을에 자리한 카페는 온라인상에서 ‘맛진 뷰, 전망 좋은 카페’로 제법 알려져 있다. 패션정보전문가였던 윤 대표의 남다른 감각이 스며든 듯 인테리어는 물론 플레이팅도 돋보인다. 해외출장이 잦았던 시절, 먹는 걸 좋아하는 그녀의 ‘맛집 투어’ 경험이 지금의 ‘카이로스 카페’를 만드는 데 한 몫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

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윤 대표는 좀 더 제주스럽고, 좀 더 건강한 맛에 신경을 썼다. ‘카이로스’에서는 유기농 식재료를 비롯해 제주도산 고사리, 당근, 수제 소시지 등 로컬푸드, 그리스 크레타섬의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을 사용해 신선한 풍미를 더한다.

주인장의 추천 메뉴는 당근 주스와 브런치 메뉴인 고사리 파니니.

제주 특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주인공은 구좌 당근 100%를 착즙해 원재로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한다.

메뉴 중 애착이 깊은 고사리 파니니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맛을 보여주려고 차별화된 아이টে임을 찾던 중 탄생했다.

윤 대표는 “제주산 고사리와 소고기에 불고기양념을 하고, 치즈를 더하는데 반응이 좋았다.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좋아하는 브런치 메뉴”라고 말했다.

그녀의 ‘최애’ 식재료 아이템 중 하나인 제주산 고사리는 알리오 에 올리오 파스타에서도 어김없이 진가를 발휘한다. 윤 대표는 “차별화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파스타에 고사리를 넣었

는데 잘 어울리더라”면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함을 보였다.

아보카도를 갈아 넣은 ‘아보카도커피’와 브런치 메뉴 중 제주 청수리 호밀 캄파뉴와 토마토 스프, 샐러드, 제주 수제 소시지와 커피로 구성된 ‘시그니처 세트’도 ‘카이로스’의 추천 메뉴다.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지 않음에 가격도 높고 손님들의 반응은 갈리는 편이다. 주인공은 “‘비싸다’는 반응이 좀 아쉽지만 ‘비싸지만 맛있고’고 해주면 고맙다”고 했다.

가격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건강한 맛을, 멋진 뷰를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장소로도 괜찮을 듯 싶다.

‘카이로스 카페’는 제주시 애월읍 장유길 49-39번지에 위치해 있다. 메뉴 구성은 ▷아메리카노 6000원 ▷아보카도 아이스 커피 8500원 ▷제주 당근 주스 8500원 ▷제주 고사리불고기 파니니 2만2000원 ▷시그니처 커피세트 2만4000원 등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하절기(4~10월)는 오후 7시, 동절기(11~3월)는 오후 6시까지다. 주문은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영화觀

### 비가 와서 잠도 안 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많아도 너무 많이 와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 뉴스에선 이번 장마가 사상 최장 기간 한반도에 비를 뿌리는 물난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몸을 다치고 비에 목숨을 빼앗겼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의 출발은 무척 우울했다.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무서운 비가 이 여름을 호되게 때리고 있다. 2020년은 이다지도 힘들다. 이 시기를 견뎌낸 모두에게 지나간 과거로 남겨 추억으로 이야기하기엔 가혹한 날들이다.

영화 속의 비는 현실과는 다르게 낭만적인 구석이 있는 등장인물이다. 내리는 비는 멜로드라마에서는 사랑하는 두 연인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순간 흠뻑 젖어 내추럴한 특수효과로 기능한다. 이를테면 속은 바짝 타들어가지만 겉모습은 비로 인해 촉촉하게 유지하며 주인공들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내리고 흠날리는 비가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엄격한 그녀’를 만들었던 박재용 감독의 영화에는 비가 자주 등장한다. 이복남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애절한 톤으로 그려낸 ‘비 오는 날 수채화’는 제목부터 비가 주인공이다. 어렵풋한 기억이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두 주인공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서로를 애타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비에 젖은 두 배우 목소리와 강석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또 다른 박재용 감독의 연출작 ‘클래식’에서도 비는 큰 역할을 맡은 바 있다. 갑자기 쏟아지는 캠퍼스의 비는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을 만들었던 일등공신이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던 조승우와 손예진 배우의 옛날 얼굴과 옷 하나로 비를 가리며 함께 비를 피하던 조인성과 손예진 배우의 멜로드라마적 순간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히트작들도 비는 종종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등장한다. 지난해 말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날씨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 포스터.

의 아이’ 역시 제목에서부터 비 냄새가 물씬 맡아진다.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을 지닌 소녀 하나를 만난 가솔 소년 호다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특유의 섬세한 작화와 정서적인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드라마틱한 비가 내리는 ‘날씨의 아이’와는 또 다른 서정적인 비의 향연이 펼쳐지는 작품이 있다.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중편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이 그 작품이다. 50분이 채 되지 않는 러닝타임을 빠르게 적시고 있는 ‘언어의 정원’의 빛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답게 영화의 정서를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쿄의 신주쿠 공원을 촉촉히 적신 비의 마술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환상성과 근사한 시너지를 내며 국내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덤을 강화시킨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속 비들은 이처럼 정서적 배우 목소리와 강석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또 다른 박재용 감독의 연출작 ‘클래식’에서도 비는 큰 역할을 맡은 바 있다. 갑자기 쏟아지는 캠퍼스의 비는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을 만들었던 일등공신이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던 조승우와 손예진 배우의 옛날 얼굴과 옷 하나로 비를 가리며 함께 비를 피하던 조인성과 손예진 배우의 멜로드라마적 순간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주택용 태양광이 없는 우리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우리집 한달 전기요금은 104,140원

30년이면 104,140원 × 12달 × 30년 = 37,490,400원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옆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옆집 한달 전기요금은 17,690원

30년이면 17,690원 × 12달 × 30년 = 6,368,400원

###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보통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 기준으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절감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